

성명 : 한 어진

출신 국가 : 한국

일본 유학 시험 장소 : 한국/서울

일본 유학 시험 수험 과목 : 일본어, 종합과목, 수학

도입 전 입학 허가제도를 통해 출원 한 학교 : 1

※일본어 학원에서의 대학 설명회를 듣고, 도시샤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어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학력 (출신 고등학교) : 혜성 여자 고등학교

장학금 수급 유무 : 유

※JASSO 사비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금

인생 첫 목표였던 일본 유학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며

① 일본 유학을 준비하게 된 동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일본의 드라마, 노래,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일본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고등학교 3 학년 때 까지는 일본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의 미디어를 즐기려면 한국어 자막이 꼭 필요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막 없이 일본의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미디어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일본 고유의 문화를 몸소 느끼고 싶다고 생각해, 그렇게 막연히 '일본에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과 함께 취미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던 일본어 공부를 통해 JLPT N2 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래는 그 어느 대학에도 진학할 생각이 없었지만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던 고등학교 3 학년 때, 대학과 취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한 결과 '기왕 공부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유학 가기로 결정하고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본격적으로 EJU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② 현재 유학 중인 일본의 지역,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유학 전의

저는 원래부터 일본의 관서 지방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왔던 저는 도쿄랑 서울이랑 다른 점을 거의 못 느끼고, 기왕 일본 가서 살 것 가장 일본스러운 관서 지방에서 살자 라는 생각으로 관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희망 대학을 정하기 위해 대학들을 찾아보던 중, 도시샤 대학교에 문화정보학부라는 학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문화정보학부에서는 문화뿐만 아니라 정보 과목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문화"에 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문화" 하면 떠올리는 각종 예술과 미디어만이 아닌, "인간의 모든 행동" 으로서 다루고 그를 연구할 때 문화정보학부의 정보 관련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정보학부에 대한 흥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시샤 대학교의

문화정보학부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다른 대학교들에서는 배울 수 없는 “문화정보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 도시샤 대학교의 문화정보학부 한 학부만을 지망하며 EJU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학 준비 할 당시에는 EJU 의 일본어, 종합과목 (혹은 이과 과목), 수학의 성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3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도시샤 대학교 교타나베



도시샤 대학교 교타나베 캠퍼스의 크리스마스 트리

③ 나의 일본 유학 시험 학습법

처음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청해에 익숙해지기 위해 일본의 드라마와 예능 방송 위주로 영상을 많이 보고, 노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어라고는 한국의 고등학교 수업시간에서 배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전부였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과 노래들을 접해 가면서 노래 가사나 방송 자막에 나오는 한자와 일본어 표현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일본인들의 빠른 말 속도에 익숙해지게 되어, 일본인들의 일상 대화보다 속도가 느리고 발음이 좀 더 정확한 EJU 청독해와 청해 시험 문제를 보다 쉽게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독해 시험이 바로 끝나자마자 청해 시험이 시작되어 시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는데, 청해 시험 문제에서는 그 문제에서 뒷 내용이 예상되는 흐름으로 끝나려나 싶지만 문제가 끝나갈 때 즈음 마지막 한마디로 인해 반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듣기에 집중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JU 일본어 과목의 독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EJU 독해에 자주 나오는 어휘나 문법 위주로 암기했습니다. 암기할 때에는 무조건 직접 읽어가며 손으로 많이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독해 문제 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주요 키워드를 빨리 캐치하는 것, 그리고 속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로 갈수록 장문 지문 문제가 나와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독해 공부할 때 스톱 위치로 시간을 재 가며 먼저 문제를 읽고 문제 풀이에 필요한 부분만 캐치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연습 방법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 과목과 수학 공부할 때는 한국 고등학교 과정과는 커리큘럼이 조금 달라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무작정 암기해가며 외웠습니다. 수학은 수 1 내용과 좀 닮아 있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종합 과목은 사회탐구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역사, 경제, 국제 사회, 지리 등 모든 영역을 전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암기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한국 수능과는 달리 정해진 범위가 없어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EJU 종합과목 문제집만 보서는 시험 문제를 풀기 어려워 그 외 종합과목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최신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수업, 학교 생활, 일상 생활

1. 수업과 공부

일본의 대학은 한국의 대학과는 달리 원하는 수업을 위주로 자신의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한국 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모든 과목을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하고, 듣고 싶은 수업의 선착 등록을 실패했을 경우 남들과 똑 같은 학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다니고 있는 도시샤 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의 대학교들도 “선행 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해, 제일 인기 있는 수업은 추첨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 등록에 해당되는 수업이 아니어도, 자신의 학부와 관련 된 수업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로 수업을 듣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열심히 듣다 보면 귀가 점점 트여 보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과제와 시험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우는 문화정보학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며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학교 생활

제가 일본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는 코로나가 심각했던 시기여서 반드시 격리를 마치고 학교에 가야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비자와 재류 자격도 코로나로 인해 보통 유학생들보다 조금 늦게 받아, 입학식과 2 주차 수업은 온라인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 등교한 날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클 활동도 해 가면서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점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습니다.

3. 주거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본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 와서 첫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일본 집을 구하자니 직접 집 상태를 안 보고 바로 계약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격리 끝나자마자 저는 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인분이 상주해 계신다는 점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수시로 찾으며 반년간 기숙사에서 살고, 학교 앞 맨션으로 이사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일본 집을 계약할 때에는 시키킨(보증금)과 레이킨(집주인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내는 돈)이라는 것이 있는 것 등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집에 관련된 자료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밴드 동아리에서의 라이브 같은 과 동기들과 타코야키 파티

⑤ 도일 전 입학 허가 제도를 활용해서 좋았던 점

모국에서 일본 유학 시험을 치르고, 합격 여부를 알게 되는 도일 전 입학 허가 제도를 통해 유학 준비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려면 시험 공부는 물론이고 합격 후 준비할 서류 등이 많은데, 도시샤 대학교의 입시처럼 도일 전 입학 허가 제도를 통해 서류 등 유학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확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준비를 했다면 타국에서 혼자 EJU 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일 전 입학 허가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힘든 점 없이 제 인생의 목표 중 하나인 일본 유학 하나에 집중하며 공부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학생생활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도일 전 입학 허가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일본에 와서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면 일본에서 살기 위한 지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힘들게 수험 생활을 보냈을 텐데, 도일 전 입학 허가 제도를 통해 대학 합격 후 일본에 오고 나서 보다 수월하게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⑥ 도일 전 입학 허가 제도를 통한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도일 전 입학 허가 제도가 있는 학교 중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로 삼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본 유학 시험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학교가 어떤 학교이고, 어떤 수업이 있는지 등 그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수록 목표가 뚜렷해지고 열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학교여도 학부에 따라서 그 학부에서 요구하는 EJU 과목 성적과 영어 성적 등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사이트에 있는 입시 요강을 잘 읽어보고 그에 맞게 수월히 유학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진로를 선택해서 일본 유학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일본에 와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미래를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해주세요! 고생 한 만큼 꼭 원하는 학교에서 즐거운 일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